

BP, 중국 PTA 90만톤 증설계획

2006년 가동 예정으로 초산 50만톤도 ... 10억달러 추가투자 결정

영국 BP가 중국에서 상하이의 에틸렌(Ethylene) 크래커 투자에 이어 총 10억달러 프로젝트에 추가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중국사업 전개를 강화하고 있다.

초산은 四川省의 합작사업에 이어 南京에 합작으로 5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廣東省 珠海에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120만톤 합작체제를 구축한다.

최근 중국석유화학총공사(SINOPEC), PetroChina 등과 합의했는데 주유소 500개 설치 및 수소자동차 프로젝트 등도 포함돼 있다.

석유화학 관련투자 가운데 초산은 江蘇省 南京에 새로운 플랜트를 건설한다. BP는 1998년 SINOPEC 四川 Vinylon廠 등과 합작해 Yangtz Acetyl을 설립했으며 여러 번의 증설을 통해 35만톤 체제를 구축했다.

SINOPEC과 새롭게 체결한 계약에 따라 SINOPEC과 50대50 합작으로 南京에 50만톤 신 플랜트를 건설한다. BP의 Cativa 프로세스를 채용하며 2006년 말 가동할 예정이다.

PTA는 BP가 富華集團과 합작해 만든 BP珠海化學에 85%를 출자해 2003년 가을부터 30만톤 플랜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새롭게 대규모 증설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20만톤 생산체제를 확립해 중국 최대의 PTA 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BP는 SINOPEC, PetroChina와 각각 합작기업을 설립해 2007년까지 浙江省 및 廣東省에 주유소 500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중국과학기술부가 2005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실시 예정인 수소를 이용한 신 교통수단 실험용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7/12>